

# 하나님의 말씀

단어의 확산에 관한 정보 2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2107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 18 장 20 절)....3	
3983 영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4	
4710 영적인 생각의 교류.....5	
5091 영적인 공동체. 동역하는 역사.....6	
3390 영적 지식은 전달해 줄 의무를 부여한다.....6	
5143 적대감. 비밀리에 행하는 역사. 증가된 사역.....8	
8529 포도원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격려.....9	
8663 진리를 전하는 사명.....1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 18 장 20 절).

B.D. No. 2107  
1941년 10월 10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어떠한 약속이 들어 있느냐!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믿음을 격려하기를 원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주님에 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 즉 사람들이 주님을 심장에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은 비록 볼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한다.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볼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임재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주님이 이 말을 우연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이 말 안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기도하는 큰 모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깊은 내적인 체험이 되어야 할 일이 기계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외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관점을 알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한 의지가 이미 하나님을 이끌어 들인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큰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서로 간에 생각을 나누는 일이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의 생각 가운데 몰두하고, 이러한 생각이 항상 영의 나라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항상 영원한 질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주 아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긴밀함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곳에 거하기 때문이다.

큰 모임에서 선하게 머물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단지 아주 적은 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의무를 다하고, 그러므로 형식적인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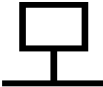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작은 모임에서 서로간에 함께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외부로부터 그에게 임하는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의지가 특별하게 강하지 못하다면, 전혀 주님과 깊고 긴밀한 연결을 이룰 수 없는 모임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런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이 외부로부터 그에게 임하는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의지가 특별하게 강하다면, 주님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형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이 말씀이 실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측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

B.D. No. 3983

1947년 2월 22일

 든 영적인 대화는, 이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내적으로 동의하고, 거부하지 않을 때, 나를 끌어 들인다. 나는 각 사람의 생각을 그들에 성품의 맞게 인도하면서, 그들 안에서 나의 영이 역사하면서, 모든 이런 대화에 동참한다. 이로써 나의 영이 내면에서 그들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가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남으로, 다투는 가운데 이뤄질지라도, 영적인 대화는 항상 나의 동의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한 나의 성품을 닮으려 하는 사람을 통해, 사랑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접할만 하게 보이는 선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말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문제에 답변을 구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진리를 구한다는 증거이고, 모든 영적인 대화에 중심이 “나”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하고, 그들에게 전적인 선명함을 주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투기만 해서는 안되고, 나의 임재를 보장하는, 진리 자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나의 임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단순히 세상적 이익이 단지 영적인 토론의 근원인 곳은 내가 분명히 거리를 둔다. 이 곳은 나를 물리치려는, 믿음을 흔들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들과 그들의 창조주 사이에,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려는 최종목적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곳은 또한 단지 나의 대적자의 편에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다. 대적자 자신도 그 곳에 함께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돈케 해서, 그들이 선명하게 생각할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앞으로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한다.

나는 나를 인정하는 곳에 거하고, 나의 대적자는 나를 거절하는 곳에 거하고, 이에 따라 영적인 대화의 결과도 달라진다. 그러나 비록 나의 대적자에 의해 이뤄지는 대화라 할지라도,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참여했을 경우, 이 대화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충만하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내가 그를 통해 말하면서, 그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임재가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나의 영을 부여할 수 있는 곳에, 받기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이 싸움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이런 대화가 어떤 성공을 할지는, 진리를 향한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생각을 영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왜냐면 그들이 진지하게 진리를 사모하면, 비로소 그들에게 진리가 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생각의 교류.

B.D. No. 4710

1949년 8월 10일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면,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믿을 수 없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영의 존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영의 존재는 너희의 대화에 참여하고, 너희가 깨닫도록 지원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비록 너희의 생각을 이성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것으로 여길지라도, 이런 생각은 영의 나라에서 주어진 생각의 파장을 너희가 영접한 것이고, 이제 너희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 너희가 붙잡은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영을 추구하고 같은 성장 정도에 있다면, 영적인 생각의 교류는 항상 일치될 것이다. 또는 성장 정도가 서로 다르면, 질문과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런 대화는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도 항상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대화는 대부분 이런 대화를 하게 만드는 빛의 존재의 참여를 통해 대화하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고, 빛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 섬기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인 자신의 보호대상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어, 이런 대화가 이뤄지고 자신들로부터 영향을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하는 사람이 대적자라면, 싸우는 논쟁이 일어난다. 논쟁의 해답은 빛의 존재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 빛의 존재는 항상 대적하는 편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영적인 토론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자극을 받고, 혼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된다. 혼은 이제 스스로 영적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이로써 비로소 토론할 수 있게 되고, 그는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대화를 피하는 사람은 빛의 존재가 돌봐주는 일을 막는다. 그는 모든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하고 절대로 지식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영접하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공동체는 아주 많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면 영적인 공동체는 말과 행동으로 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인 공동체를 조직의 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연합된 가운데 진리에 다가 가려는 그러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 가려는, 동시에 그의 이웃을 나에게 인도하기 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왜냐면 조직은 진실로 영을 추구하는 회원이 없이 존재할 수 있고, 내가 단지 나를 향한 올바른 갈망을 영적인 추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주제를 진지하게 서로 나누고, 심장 안에 조용한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나와 연결되기 갈망하는 사람의 연합이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내 축복은 항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일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도 함께 하고 그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나 자신이 나에게 특별히 순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이 나의 역사임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그의 말에 감동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의 말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그를 인정할 것이다.

영적인 공동체는 개개인의 사람이 단지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게 성공하기 때문에 나를 크게 섬길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각각의 사람들은 나의 추종자를 얻으려고 해야 하고, 모든 각각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확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항상 새로운 일꾼을 나에게 인도해야 한다. 왜냐면 마지막 때에 많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고, 모든 능력이 요구되는 종말의 다가오기 전에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해야 할 일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함께 크게 성공할 것이다. 왜냐면 개인은 이웃에 의해 항상 의심의 눈으로 관찰을 받고, 그의 말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똑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함께 하면,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의미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섬기려는,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려는 같은 추구를 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라. 이를 통해 너희 자신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새로운 혼들을 얻을 것이고, 나와 내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는 사명을 위해 이 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이 영적인 위험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취시킬 것이다. 그들은 쉽게 믿음을 찾을 것이고, 나에게 의해 언제든지 강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나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 지식은 전달해 줄 의무를 부여한다.

**너**희의 지식이 증가되도록, 너희는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일을 위해 다시 활용해야만 하는 힘이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

희는 너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 것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너희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하면서, 이 힘을 사용해야 한다. 영적인 힘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힘을 가진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힘은 쉬지 않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을 그냥 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힘을 다시 거두어 간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이웃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웃 사람에게 지식인 전해지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 받은 사람은 전하는 과제를 받는다. 영적인 지식을 제공받아, 이를 영접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을 통해 영적인 소유물로 만든 사람이 지식을 전달할 때, 비로소 그 자신이 영적인 지식으로 인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자신에게 가치가 충분하게 된 것을 그는 자신의 이웃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아직 자기 사랑이 더 강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축복을 적게 느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영적인 지식을 전적으로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으려면, 이 지식을 그냥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주는 자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의 갈망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의무를 받는다. 그는 더 나아가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받는다. 왜냐면 진리는 오류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전달자는 아직 어두움이 있는 모든 곳에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 일은 사람이 영의 나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은혜를 받으면, 그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일이다. 왜냐면 사람은 항상 단지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영적인 인도를 위해 자신의 보호아래 맡겨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빛의 존재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희귀하게 빛의 존재의 세밀한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의 존재는 자신들 대신에, 자신들의 도구로써, 이제 말해야 할 사람을 양육한다.

빛을 받는 사람은 이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말해야 한다. 그는 말씀과 성경을 통해 전해야 한다. 그는 매일과 매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 자신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자신을 쾌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과 강함을 얻으라는 권면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신의 의무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일을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위로부터 자신에게 제공되는 진리를 받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만들지 못한다. 왜냐면 진리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전달이 되어, 인류가 영적인 패망의 원인이 되고, 세상적인 위험과 환란이 오게 하는 원인이 되는 큰 영적인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

적대감. 비밀리에 행하는 역사. 증가된 사역.

B.D. No. 5143

1951년 6월 3일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은 아직 적다. 그러나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아주 적은 수가 될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될 것이다. 이들 중에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에 너희에게 반대하도록 자극하고 볼 수 있게 나타나는 영의 역사때문에 너희들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운데서도 내 말씀에 붙잡힘을 받고, 말씀이 심장 안에서 역사하여 심장에 감동을 주어, 인정하는 작은 무리의 너희를 따르는 자들을 얻는다. 그러나 너희가 이 들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온다. 모두가 혼자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때가, 나를 향한 믿음과 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는 대적자들에게 둘러 싸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이때 그들이 나 자신으로부터 내 말씀과 양식을 공급받아, 전적으로 믿으면서 자신 안에 영접한 열매가 나타난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핍박을 견딜 것이고 항상 또 다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공개적으로 역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공개적으로 내 말씀은 전파할 기회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말씀은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 대한 적대감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내적인 견고함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너희 안에서 드러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생명력 있게 될 것이고, 외부에서 대적하는 것들이 너희를 내적으로 흔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나에게 신실하게 남으려는 사람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의지를 알아차리고, 언제든지 그가 필요한 때에 그에게 능력을 주어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의 한 동안의 시간은 너희가 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이에 대해 너희의 주의를 환기시켜, 너희가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보내 버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 너희가 모든 곳에서 금지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하는 은사를 받을 것이고, 자주 너희의 말은 듣고, 이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일한 너희의 포도원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때에 너희는 열심히 사역해야 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사랑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싸움 즉 믿음의 싸움이 시작될 때 너희가 내 말씀은 전파하는 일에 방해받을 지라도 많은 것들이 그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너희가 뿌린 씨앗은 뿌리를 내릴 것이고 피어나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사역은 너희와 이웃사람의 축복을 위해 비밀리에 계속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영적인 사역을 이 땅의 끝날까지 축복할 것이고, 언젠가 영원 가운데서도 축복할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생각을 통해 주는 내 말이 가장 크게 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게 알려 주는 일이 너희가 열심히 영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격려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통해 대답해 주는 질문에 빠져 있는가! 얼마나 자주 그들이 답변을 받게 되었을 때 행복해하는가! 그들은 이제 나 자신과 내 역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진실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모든 생각을 안다. 너희 스스로 생각으로 나와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너희에게 나는 내 말을 전해주고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너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받던 또는 너희가 내 전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던 내 말이 너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위해 이런 긴밀한 연결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너희는 전달해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하고 너희가 큰 축복을 발산함을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생각을 인도함을 내가 단지 나로부터 인도함 받으려는 너희의 의지만을 필요로 함을 항상 알아야 한다.

한번 내 음성을 깨달은 자에게 나로부터 온 모든 말은 그에게 그의 혼을 위한 생기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계속하여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음료를 갈망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말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는 단지 내 말이 능력을 줄 것이다. 그는 단지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 영양분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항상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제공해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너희는 내 말을 전하라고 격려 받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내적인 격려를 따라야 한다. 너희는 진실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심장을 화염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빛의 불씨를 느낄 것이다. 나와 내 임재에 대한 갈망은 항상 강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내 말로부터 감동을 받고 항상 나에 대한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 나와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항상 강해지는 것이 이로써 내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가 된 내 의지가 성취되는 일이 바로 내가 위로부터 너희들과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너희는 열심히 포도원 일을 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전하는 일에 피곤 해져서는 안 된다. 영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 자신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사람 안의 영의 역사에 관한 것을 이웃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모든 기회를 너희는 활용해야 한다.

너희는 이웃들 영적인 영역으로 이끌려고 해야 한다. 비록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섬기려는 너희의 의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희에게 항상 올바른 길을 찾게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인도하고 항상 스스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다시 행복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 너희를 인도한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내 대적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게 너희를 지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록 대적자가 너희들과 너희의 역사를 이 땅에서 금지시키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내 포

도원에서 일할 너희가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나 자신이 나를 나타낼 수 없는 곳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내가 역사하기를 원하는 곳에서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아직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만 한다. 이 때문에 나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내 모든 종들을 축복한다.

아멘

진리를 전하는 사명

B.D. No. 8663

1963년 11월 3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부유함은 너희에게 전달해줄 의무를 부여한다. 너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 의지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너희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자가 주는 장애물과 어려움 때문에 너희를 놀라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내 축복을 약속하면, 내 대적자의 역사는 헛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가 나를 제한이 없이 신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축복과 내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잊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준 내 사명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동시에 세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단지 이 일을 내 이름으로 나와 내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을 하는데 너희에게 역사하게 허락받은 영적인 능력의 도움으로 단지 실행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빛을 원하는 사람은 단지 몇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소수가 다시 그의 영역에서 역사할 수 있다. 너희는 모든 곳에서 나로부터 나온 진리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사람들이 빛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너희는 가장 특이한 만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비록 내 인도함이 분명 할지라도 사람이 역사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서 어떤 사람도 믿음의 강요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라도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 종인 너희는 항상 다시 내 사랑과 내 도움을 체험한다. 왜냐면 모든 선한 가장은 자기의 일꾼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일꾼들을 내 자녀로 여긴다. 나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없게 할 것이다. 항상 단지 내 아버지의 돌봄에 너희를 맡겨 두어라. 전적으로 너희를 나에게 드러라. 진실로 내가 너희를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한 너희의 일을 축복하여 좋은 성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선하고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 일을 실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람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즉 자신에게 너희를 통해 제공된 나로부터 온 진리를 영접할지 거절할지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야만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들은 긴급하게 이런 순수한 진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다시 신실한 동역자들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은 확실하다.

아멘